

# 책의 원시형태 보여주는 신라 '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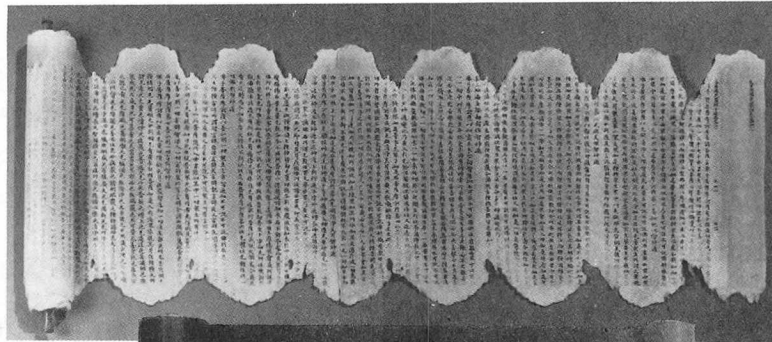
불교경전 손으로 베껴 써 ... 두루마리 책의 효시

신라시대의 사경(寫經)에서 '책의 문화유산' 답사여행을 시작하자. 목판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의 책은 모두 손으로 써서 이루어졌는데, 불교경전을 손으로 베껴 쓰는 사경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수용된 이래 불경을 널리 전파·보급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초기 사경 가운데 가장 연대가 앞선 것은 용인 호암미술관에 있는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국보 제196호)이다. 이 사경은 통일신라 경덕왕 때인 754~755년에 구례 화엄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너비 29cm·길이 14m에 이르는 흰 닥종이에다 먹으로 1행에 34자씩 단정한 해서체로 씌어졌다.

두루마리 말미의 발문에는 연대·발원자(發願者)와 사경의 취지·방법 등이 적혀 있고 관계자들의 관동·신분이 밝혀져 있어, 당시 신라사회의 신분제나 이두(吏讀)연구에 귀중한 사료 구실을 한다. 이에 따르면, 화엄사를 창건하면서 전라도 무진주(광주)와 완산주(전주)에서 12명, 당시 서울인 경주에서 7명의 사경 전문가를 초빙해 만들었음을 알게 한다.

이러한 사경은 8세기 초에 목판인쇄술이 출현하면서, 특히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시대에 불교경전의 인쇄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불경의 전파·보급이라는 초기의 실용성보다는 신앙적인 공덕(功德) 쌓기가 강조되었다. 그에 따라 국태민안이나 가문의 번영, 망자의 명복 등을 비는 국왕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경인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755년·국보 196호·호암미술관). 아래는 국보 215호인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1337년).



초기에는 불경의 전파·보급이라는 실용적인 의미가 컸지만 목판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신앙적인 공덕쌓기가 강조되었고, 왕족·귀족층에서 특히 성행했다.

나 왕족 또는 귀족층의 발원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사경은 특별히 제작된 질은 감색종이에 금박이나 은박가루를 아교 풀에 갠 금니(金泥) 또는 은니로 글씨를 쓰고 화려한 변상도(變相圖)를 곁표지에 그

려넣는 등, 이른바 장식경(裝飾經)이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사경의 형태도 두루마리보다는 병풍처럼 접는 절본(折本)형식이 더 많이 보이는 것도 고려사경의 특색이다.

이들 사경은 대개 불상이나 불탑 안에 안치되는게 통례인데,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장식경으로는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1337년·국보 215호·호암미술관),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1334년·보물 752호·서울 호림박물관), <상지은니 묘법연화경>(1373년·국보 185호·국립중앙박물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사경불사는 목판인쇄와 아울러 활자인쇄가 발달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성행했는데, 특히 초기 왕실에서 즐겨 조성했다. (W)

# 출판저널

통권 제206호 / 1997년 1월20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증환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마정미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김지욱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살아 움직이는 손길**

곧,  
 ”

**책장을 넘기는 순간입니다.**

■ 독서계의 흐름과 출판계의 이모저모로 이채롭게 꾸며,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엮은 합철본을 새로 제작, 한층 자료가치를 높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 출판저널 합본호 판매안내

- 합본1호(날권1~10호) 5,000원(판매)
- 합본2호(날권11~20호) 5,000원(판매)
- 합본3호(날권21~30호) 5,000원(판매)
- 합본4호(날권31~40호) 5,000원(●)
- 합본5호(날권41~50호) 5,000원(판매)
- 합본6호(날권51~60호) 9,000원(판매)
- 합본7호(날권61~70호) 10,000원(판매)
- 합본8호(날권71~80호) 10,000원(판매)
- 합본9호(날권81~90호) 10,000원(판매)
- 합본10호(날권91~100호) 10,000원(판매)

\* 구독의 불편·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서신등을 통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료는 합본제작비로 인해 수취인 부담관계로 직접방문, 구입하시면 유리합니다.